

技術民族主義

—人類史와 文化發展의 動因—

李 佳 鍾

<國民大學校 教授>

기술개발 혹은 기술혁신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기술개발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언론계 및 학계에서도 열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마도 과거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이르러 매스 미디어의 잉크를 가장 많이 소비한 단어중의 하나가 「기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술개발의 문제는 점차로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와 결부된 사회 경제적인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眞空管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처해 있는 사회환경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태까지의 연구경향은 이러한 사회현상의 분석에 소홀하였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서구사회의 몇몇 에피소드(episode)의 나열에 그치거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책에 적용하려는 무리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기술개발을 말할 때 자칫하면 논의의 초점을 잃기 쉬우며 피 상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기술이 생성·발전하는 사회환경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급변하고 있으며 그 성격에 있어서도 전세기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다른 것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과제를 말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급변하여 가고 있는 기술사회의 변동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새로운 시각에 의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청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처해있는 기술사회의 환경변화는 對外的인 것과 對內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對外的인 것과 對內的인 것은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對外的인 환경변화는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기술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對內的인 환경변화란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기술개발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하는 것이다.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기술의 역사적 의미이다. 이 중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60년대와 70년대에 시작된 技術民族主義 혹은 기술보호주의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학, 인류학 및 과학사학자들에 의하면 기술은 인류역사의 動因이며 문화의 변동요인이라고 규정한다. 즉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비중이 한 시대의 특성을 가름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기술지식은 生産力(forces of production)의 主流을 이루고 그것은 富와 權力的의 근원이 된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벨(Daniel Bell)은 脫工業社會(post-industrial society)에서는 기술지식이 産業社會에서의 資本 및 財力의 위력을 代替하고 사회적 부와 권력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國家의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기술지식은 오늘날 모든 사회영역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점점 稀貴한 가치로 부각된다. 또한 오늘날 기술민족주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기술지식의 국방 및 안보와의 밀접한 관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지식은 기업체의 財務諸表의 귀중한 資産目録으로 기재되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政策어젠더(agenda)에서도 우선순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요즈음 기업인들은 기술지식을 얻어쓰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렇게 인색해질 수 있는냐고 불평들을 가깝한다. 70년대 초에는 그래도 돈주면 기술을 빌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돈 주고도 기술을 빌려쓰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새視覺으로 새接近方法 摸索부터

글쎄 장사밀친 제1호인 기술을 헛사리 빌려주겠는가부터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에 선뜻 기술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다른 장사속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빌려줄 기술이 사양화 되어 별로 시장성이 없다든지 또는 보호주의 때문에 시장침투를 못할 바에야 차라리 기술사용료라도 받아 쓰는 것이 낫겠다든지 혹은 기술을 모방할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까다롭게 하여 상대방을 꼼짝못하도록 묶어 놓겠다든지 하는 등이다.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기업이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외국기술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경공업부문의 단순한 기술이거나 그 기술이 오래되어 외국시장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한 낙후기술들의 문제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물량위주의 경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엉뚱한데서 경제침체의 원인을 찾고 있으니 문제가 더 복잡하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틀린 문제 제기에 대한 옳은 해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해답은 시원치 않더라도 문제 제기만은 올바르게 해야한다는 점에 있다.

외국기업이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에 기술이전을 기피하려는 현상은 對外的인 국제환경의 변화에서만이나 아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근 60여년동안 착실히 성장하여 많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술능력도 낮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축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섬유산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과 중공업부문의 조립생산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기술수준에 있어서 60년대는 국민학교, 70년대는 중학교수준이 었다면 80년대에는 고등학교수준에 달할 것이라 생각해보자. 사람이 성장하면 의관도 달라지고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나 내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만일 선진제국의 기술수준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 기술수준에 대하여 그렇게 큰 경쟁의식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외국기업들이 우리경제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또는 앞으로 성장할 잠재력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거나 경쟁의식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인들은

이점에 깊이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태까지의 남의 기술에 의존하여 또 국내의 싼 노임에 의하여 국제시장에서 돈을 벌던 지난 날들은 이전 현실아닌 과거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우리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특히 비율의 증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78년만 하더라도 외국인 특허등록 비율이 70% 미만이었으나 1979년에는 81.8%, 그리고 1980년에 와서 87.3%로써 거의 90%를 육박하였다. 1981년에는 어떤 비율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몇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당연한 것 아니면 심지어는 잘폐가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은 듯하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필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는가? 기술민족주의라는 편협된 감정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렇지만 낙관적인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같은 기분은 지위머리가 어렵다. 외국인 특허등록의 격증은 우리의 기술개발노력을 저해 혹은 방해하려는 전략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 유도 없지 않다. 우리 특허청에 등록된 외국인 특허중 2-3퍼센트만이라도 기술이전에 사용되었다면 낙관적일 수 있겠다.

知識과 智慧는 다르다. 기술은 지식이요, 기술을 배우는 방법은 지혜이다. 지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를 배우고 익히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남에 의존하여 얻은 지식은 올바른 자기의 지식이 되기 어렵고 쉬웠기 쉬우며 디구나 그것은 슬기를 빼앗아가는 魔力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지식만이 아닌 슬기를 배워야할 때가 온 것 같다. 남의 지식을 빌려 쓰되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의 지식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외존」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우리는 GNP 성장율이나 수출성장율 같은 외형적이며 물량위주의 지수들을 발전의 표적으로 삼는 것보다 내국인의 특허등록의 증가나 세계적 발명 혹은 과학자의 우수한 연구업적등의 지식 및 지혜의 계수를 발전의 목표로 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